

## 청소년의 손 씻기 실천 행태 분석; 청소년 건강행태 온라인 조사 2011-2013년도를 중심으로

최영실\*

<sup>1</sup>송곡대학교 간호과

### Behaviors of hand washing practice Korean adolescents, 2011-2013: The Korea Youth Risk Behavior Web-based Survey

Young -Sil Choi\*

<sup>1</sup>Department of Nursing, Songgok College

**요 약** 청소년의 건강증진을 위한 보건교육 프로그램 중 손씻기에 대한 교육을 기획하는데 있어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2011년, 2012년, 2013년의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 원시자료를 이용하여, 중학생 및 고등학생의 손 씻기 실천 행태를 분석하였다. 자료 분석은 조사에 참여한 표본이 우리나라 청소년의 대표성을 갖도록 지정된 가중치를 적용하였으며, 자료는 SPSS 18.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빈도 분석 및 교차분석을 실시하였다. 우리나라 청소년의 손 씻기 실천 행태는 학교에서 식사하기 전 '전혀 씻지 않았다'로 응답한 학생수가 2011년도에 22,257명(29.4%), 2012년도 22,375명(30.5%), 2013년도 13,153(18.5%)명으로 다른 항목과 달리 계속적으로 주의깊게 관찰해야 하는 상태로 유지되었다. '학교에서 식사하기 전 전혀 씻지 않았다'는 항목에 대해 최근 3개년간의 추이를 확인한 결과 도시구분에서는 대도시와 중소도시가 군단위의 소도시 보다 유의하게 전혀 손을 씻지 않는 경향을 보였고, 학교유형에서는 여학교가 남녀 공학이나 남학교 보다 학교에서 식사 전 전혀 손을 씻지 않았다고 응답한 비율이 지난 3개년 간 계속해서 높은 경향을 보였다. 또한 학교구분에서는 중학교와 일반 고등학교가 특성화 고교보다, 성별에서는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학년 구분에서는 고학년으로 학년이 올라갈수록 '학교에서 식사 전 전혀 손을 씻지 않았다'고 응답한 학생이 유의하게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써 손 씻기에 대한 학교 보건 교육 시 '식사 전 손 씻기'에 대한 교육을 특히 강조해야 하고, 학교에서 식사 전 '전혀 손을 씻지 않았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던 인구학적 특성의 대상에 대해 보다 세심한 교육과 지속적인 관찰이 요구된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assessment was to provide the basic data for setting up education in terms of 'Hand wash' as one of the health plan & education programs for adolescents. The task analyzed the behavior of students regarding hand washing, which were ranged from middle school to high school. The SPSS 18.0 statistical program, frequency-test and cross-analysis were used for data analysis by 2011, 2012 and 2013, which were the recent 3 years, the Korea Youth Risk Behavior Web-based Survey data. In the data, the response of "Never washed" from students before having a meal accounted for 29.4% in 2011, 30.5% in 2012 and 18.5% in 2013, respectively. Unlike other subjects, these facts suggest that this kind of behavior should be considered significant under the assessment. By tracking the trend over three years, some facts were confirmed in that students living in the metropolitan and medium-sized cities were less likely to wash their hands than students in small- sized towns. In terms of gender, female students were less likely to wash their hands than male students. Regarding the type of school, more students in the public middle & high schools had a tendency to respond "Never hand wash" than the students in the special-purpose high schools. Furthermore, as the grade was increased in middle school and high school, students were less likely to wash their hands before meals in school. Therefore, Health promotion and health education for students should be conducted more carefully with more emphasis on this point.

**Key Words** : Adolescent, Hand washing

\*Corresponding Author : Young-Sil Choi(Songgok College)

Tel: +82-33-260-3636 email: kiwicys@naver.com

Received February 12, 2014

Revised (1st March 17, 2014, 2nd April 14, 2014)

Accepted July 10, 2014

## 1. 서론

### 1.1 연구의 필요성

최근 청소년들이 건강증진의 목표 집단이 되고 있는 이유는 청소년기에 학습된 건강관련 행위는 성인기 까지 지속되어 각종 만성질환과 여러 가지 정신적 질병의 기초가 될 뿐만 아니라 한 번 잘못된 습관은 여러 건강장애의 원인이 되기 때문이다[1]. 청소년기 시절의 건강증진 생활 실천은 자신의 건강 뿐 아니라 장차 가정과 지역사회 건강실천을 유도하는데 큰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이들의 건강증진 행위의 실천은 국가의 건강증진 실현을 위한 목표를 이루는데 중요한 대상이 된다[2].

우리나라 청소년들은 학교 공부, 입시 문제, 수행 평가 및 과외활동으로 수면부족, 영양 부족 및 스트레스 등으로 심각한 건강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위험성을 안고 있다. 따라서 대부분의 청소년기 학생들은 건강을 위한 다양한 건강증진행위를 실천해야하나 위와 같은 입시 위주의 상황으로 인해 이를 실행에 옮기지 못하고 있다[3].

학교는 학생들이 집단으로 생활하는 곳으로 전염병 발생의 위험이 높은 곳이다. 최근 초, 중, 고 교의 전염병 발생 현황을 조사한 결과 97,476건 발병하였고, 2군 전염병은 4년간 2.4배, 4군 전염병은 1.8배 증가하였으며, 학생들에게 흔한 전염병으로 감기, 수두, 결막염, 유행성 이하선염 등이라고 발표하였으며, 이들 모두는 손을 통해서 전염될 수 있는 것이다[4,5].

건강증진행위 실천에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개인위생이고[6], 손 씻기는 개인위생을 실천하는 첫 걸음으로 이는 각종 세균과 바이러스가 손을 통하여 전파되는 경로를 차단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예방법으로[7], 손 씻기를 통해서 최근 문제가 되었던 사스, 감기인플루엔자, 식중독, 유행성 눈 병등 대부분의 전염병의 예방이 가능하며, 최근의 연구결과에서 일반 비누를 사용한 손 씻기 증진만으로 폐렴과 설사, 세균성 이질의 발생률을 40-50% 감소시켰다고 보고[8]되고 있고, 대부분의 질병 중 70%는 손 씻기를 통해 예방이 가능하다고 하였다[5].

이와 같이 손 씻기 실천이 건강 증진 및 질병 예방을 위해 중요한 건강증진 행위이나 최근 질병관리 본부에서 우리나라 국민의 손 씻기 실천율을 조사한 결과 63.4%가 손을 씻는다고 하였으나 이 중 그나마 사람이 있는 경우는 41.3%가 씻고, 사람이 없는 경우는 14.3%만 씻는 것으로 나와 미국의 손 씻기 실천율의 82%보다 현저히 낮

고, 게다가 10대 청소년은 손을 씻지 않는 경우가 전체의 45.4%[5]로 손 씻기에 관한 지속적인 강조와 지도는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해 매우 중요한 일이라 하겠다. 현재까지 진행된 손 씻기에 관한 논문은 대부분 의료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이고[9] 학생을 대상으로 하더라도 일부지역과 학년에 국한된 연구 들이다[10,11]. 따라서 학교에서 본격적으로 가장 생활을 많이 하는 전국 중학생과 고등학생을 전수를 대상으로 최근 3개년간의 손 씻기 실천 실태 경향을 파악함으로써 개인위생의 근간인 손 씻기 보건교육의 실제적인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 1.2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청소년의 손 씻기 실천 실태를 파악하기 위함이며, 구체적 목적은 다음과 같다.

- 대상자의 최근 3개년간의 손 씻기 실천 실태와 경향을 확인한다.
- 확인된 손 씻기 실천실태에서 현저하게 손 씻기 실천율이 낮아지지 않은 학교에서 식사하기 전 손 씻기 항목에 대하여 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최근 3개년간의 학교에서 식사 전 손 씻기 실천실태와 경향을 확인한다.

## 2. 연구 방법

### 2.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국내 청소년 중학생과 고등학생의 손 씻기 실천 실태와 최근 3 개년 간 손 씻기 경향을 확인하고자 하는 서술적 종단적 조사연구이다.

### 2.2 연구 대상 및 자료수집 방법

이 연구는 제 7차, 8차, 9차에 실시된 청소년 건강행태 온라인조사의 원시자료를 제공[12-14]받아 수행 하였다. 조사대상은 중학교 1학년에서 고등학교 3학년까지 전국 800개 표본학교(중학교 400개, 고등학교 400개)로 한 후, 16개 시·도별로 중·고등학교 각각 5개씩 우선 배분하였다. 층화변수별 모집단 구성비와 표본 구성비가 일치하도록 비례 배분법을 적용하여 시·도, 도시규모(대도시, 중소도시, 군 지역), 지역군, 중학교는 남/여/남녀공학, 고등학교는 남/여/남녀공학, 일반계고/특성화계고에 따라 표본학교수를 배분하였다. 표본추출은 2단계 집락

추출법이 사용되었으며, 1차 추출단위는 학교, 2차 추출단위는 학급으로 하였다. 표본학교에서 학년별 1개 학급을 무작위로 추출하고, 선정된 표본학급의 학생 전원을 조사하였으며, 장기결석, 특수아동 및 문자해독장애 학생은 표본학생에서 제외하였다. 또한 인터넷이 가능한 각 학교 컴퓨터실에서 수업시간 1시간을 할애하여 일괄조사를 원칙으로 하였으며, 개인정보를 수집하지 않은 익명성 자기기입식 온라인 조사 방법으로 수행하였다. 이 연구는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에 참여한 청소년(2011년도: 79,202명, 2012년도: 76,980명, 2013년도: 75,149명)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 2.3 연구 분석 내용

사용한 연구 도구의 내용 중 인구학적 특성으로는 도시규모(대도시, 중소도시, 군단위), 학교급(중학교, 일반계고, 특성화계고), 학교 유형(남여공학, 남학교, 여학교), 성별, 학교 형태(중학교, 고등학교), 학년구분(중1,2,3, 고1,2,3)으로 조사하였으며,

손 씻기 실천 행태는 학교에서 식사하기 전, 학교에서 화장실 다녀온 후, 집에서 식사하기 전, 집에서 화장실 다녀온 후, 외출 후 집에 돌아왔을 때 '항상 씻었다', '대부분 씻었다', '가끔 씻었다', '전혀 씻지 않았다'로 구분하여 확인하였으며, '전혀 씻지 않았다'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던 항목인 학교에서 식사하기 전 손 씻기 항목에 대해 2011, 2012, 2013 년의 최근 3개년간의 추이를 분석하였다.

### 2.4 통계 분석

연구대상자의 수집된 자료는 SPSS 18.0통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대상자의 손씻기 횟수와 연도별 변화율 그리고 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연도별 변화 추이를 확인하기 위해 빈도와 백분율 및 교차분석을 실시하였다. 모든 자료 분석은 조사에 참여한 표본이 우리나라 청소년의 대표성을 갖도록 지정된 가중치를 적용하였다.

## 3. 연구결과

### 3.1 대상자의 손 씻기 실천 실태

Table 1과 같이 전체 대상자는 2011년도 79,202명, 2012년도 76,980명, 2013년도 75,149명으로 학교에서 식

사하기 전 '항상 씻었다'고 응답한 대상자는 2011년 10,956명(14.5%), 2012년10,374명(14.2%), 2013년 9,974명(13.6%) 이었고, 학교에서 식사 전 '전혀 씻지 않았다'고 응답한 대상자는 2011년 22,257명(29.4%), 2012년 22,375명(30.5%), 2013년 13,153명(18.5%)이었다.

[Table 1] Handwashing Survey over the past three years

		(n/%)				
		Always washed	Most washed	Some-times washed	Never hand wash	
In school	Before eating	2011	10,956 (14.5)	15,591 (20.6)	26,839 (35.5)	22,257 (29.4)
		2012	10,374 (14.2)	15,126 (20.1)	26,311 (35.2)	22,375 (30.5)
		2013	9,974 (13.6)	19,727 (27.1)	29,581 (40.9)	13,153 (18.5)
	Been to the toilet	2011	24,470 (32.3)	18,705 (24.7)	1,8523 (24.8)	13,945 (18.4)
		2012	22,906 (31.0)	18,322 (24.5)	18,648 (24.8)	14,310 (19.7)
		2013	34,825 (48.2)	22,421 (30.9)	11,140 (15.3)	4,049 (5.6)
At home	Before eating	2011	26,822 (35.5)	20,466 (27.1)	19,365 (25.6)	8,990 (11.9)
		2012	26,351 (36.5)	20,063 (26.9)	18,622 (24.5)	9,150 (12.0)
		2013	24,578 (34.5)	24,148 (33.5)	18,580 (25.1)	5,129 (6.9)
	Been to the toilet	2011	37,869 (50.1)	17,849 (23.6)	13,580 (18.0)	6,345 (8.4)
		2012	36,355 (49.8)	17,578 (23.4)	13,695 (18.0)	6,558 (8.7)
		2013	40,637 (56.7)	19,146 (26.3)	9,892 (13.3)	2,760 (3.7)
Came home after going out	2011	38,099 (50.4)	17,369 (23.0)	14,335 (19.0)	5,840 (7.7)	
	2012	37,298 (51.4)	17,091 (22.8)	13,915 (18.2)	5,882 (7.7)	
	2013	37,035 (52.0)	19,559 (26.8)	12,743 (17.1)	3,098 (4.1)	

학교에서 화장실 다녀 온 후에 '항상 손을 씻었다'는 대상자는 2011년 24,470명(32.3%), 2012년 22,906명(31.0%), 2013년 34,825명(48.2%)이었고, 학교에서 화장실 다녀온 후에 '전혀 씻지 않았다'고 응답한 대상자는 2011년 13,945명(18.4%), 2012년 14,310명(19.7%), 2013년 4,049명(5.6%)로 현격히 줄었다. 집에서 식사하기 전 '항상 씻었다'고 응답한 대상자는 2011년 26,822명(35.5%), 2012년 26,351명(36.5%), 2013년 24,578명(34.5%) 이었고, '전혀 씻지 않았다'는 대상자는 2011년 8,990명(11.9%), 2012년 9,150명(12.0%), 2013년 5,129명(6.9%)이었다.

[Table 2] Handwashing behaviors According to the demographic characteristics in the past three years

(n/%)

Before eating in schools		Always washed	Most washed	Sometimes washed	Never hand wash	$\chi^2$	<i>p</i>			
Kind of city	2011	Metropolitan	5,044(14.5)	7,138(20.6)	12,368(35.7)	10,142(29.2)	91.22	<.001		
		City	4,318(13.9)	6,263(20.1)	10,993(35.4)	9,521(30.6)				
		Town	1,594(16.2)	2,190(22.2)	3,478(35.3)	2,594(26.3)				
	2012	Metropolitan	4,809(14.3)	6,747(20.1)	11,831(35.2)	10,181(30.3)			51.73	<.001
		City	4,382(13.6)	6,497(20.2)	11,396(35.4)	9,885(30.7)				
		Town	1,183(14.0)	1,882(22.3)	3,084(36.5)	2,309(27.3)				
	2013	Metropolitan	4,415(13.6)	8,666(46.6)	13,333(41.0)	6,126(18.8)			96.62	<.001
		City	4,168(13.4)	8,485(27.3)	12,701(40.9)	5,683(18.3)				
		Town	1,391(15.7)	2,576(29.1)	3,547(40.0)	1,344(15.2)				
Type of school	2011	Coed	7,757(15.3)	10,851(21.4)	17,777(35.0)	14,347(28.3)	917.04	<.001		
		Boys	2,213(17.9)	2,636(21.4)	4,120(33.4)	3,374(27.3)				
		Girls	986( 7.8)	2,104(16.7)	4,942(39.3)	4,536(36.1)				
	2012	Coed	7,443(15.0)	10,552(21.4)	17,533(55.4)	14,002(28.2)			959.46	<.001
		Boys	2,005(16.3)	2,536(20.6)	4,141(33.6)	3,625(29.5)				
		Girls	926( 7.5)	1,998(16.2)	4,637(37.7)	4,748(38.6)				
	2013	Coed	7,154(15.0)	13,409(28.1)	19,162(40.1)	8,038(163.8)			877.14	<.001
		Boys	1,870(15.4)	3,464(28.5)	4,632(38.1)	2,199(18.1)				
		Girls	950( 7.6)	2,854(22.8)	5,787(46.3)	2,916(23.3)				
Kind of school	2011	Middle	6,396(58.4)	8,710(55.9)	13,116(48.9)	10,252(46.1)	695.13	<.001		
		High	3,247(29.6)	4,924(31.6)	10,073(37.5)	9,034(40.6)				
		Special	1,313(12.0)	1,957(12.6)	3,650(13.6)	2,971(13.3)				
	2012	Middle	6,019(58.0)	8,473(56.0)	12,833(48.8)	9,972(44.6)			794.69	<.001
		High	3,260(31.4)	5,015(33.2)	10,515(40.0)	9,653(43.1)				
		Special	1,095(10.6)	1,638(10.8)	2,963(11.3)	2,750(12.3)				
	2013	Middle	6,229(17.1)	11,317(31.0)	13,775(37.7)	5,209(14.3)			1,817.89	<.001
		High	2,923(10.0)	6,700(23.0)	12,853(44.1)	6,644(22.8)				
		Special	822(12.1)	1,710(25.2)	2,953(43.5)	1,300(19.2)				
Gender	2011	Male	7,260(16.3)	8,689(55.7)	12,426(46.3)	9,498(42.7)	1,988.95	<.001		
		Female	3,696(33.7)	6,902(44.3)	14,413(53.7)	12,759(57.3)				
	2012	Male	6,934(18.1)	8,613(22.5)	12,714(33.3)	9,960(26.1)			1,700.31	<.001
		Female	3,440( 9.6)	6,513(18.1)	13,597(37.8)	12,415(34.5)				
	2013	Male	6,350(17.3)	10,910(29.8)	13,558(37.0)	5,837(15.9)			1,328.45	<.001
		Femal	3,624(10.1)	8,817(24.6)	16,023(44.8)	7,316(20.4)				
Classfy of grade	2011	Middle 1	2,373(21.7)	3,278(21.0)	4,161(15.5)	2,916(13.1)	941.85	<.001		
		Middle 2	2,069(18.9)	2,823(18.1)	4,390(16.4)	3,621(16.3)				
		Middle 3	1,954(17.8)	2,609(16.7)	4,565(17.0)	3,715(16.7)				
		High 1	1,564(14.3)	2,466(15.8)	4,564(17.0)	3,975(17.9)				
		High 2	1,492(13.6)	2,301(14.8)	4,740(17.7)	3,975(17.9)				
		High 3	1,504(13.7)	2,114(13.6)	4,419(16.5)	4,055(18.2)				
	2012	Middle 1	2,245(18.2)	3,182(25.7)	4,047(32.7)	2,888(23.4)	1,077.36	<.001		
		Middle 2	1,942(15.7)	2,732(22.1)	4,404(35.6)	3,306(30.1)				
		Middle 3	1,832(14.6)	2,559(20.4)	4,382(34.9)	3,778(30.1)				
		High 1	1,575(12.6)	2,429(19.5)	4,484(36.0)	3,963(31.8)				
		High 2	1,442(11.7)	2,136(17.3)	4,490(36.5)	4,247(34.5)				
		High 3	1,338(11.0)	2,088(17.2)	4,504(37.2)	4,193(34.6)				
	2013	Middle 1	2,557(21.0)	4,219(34.6)	4,123(33.8)	1,300(10.7)	2,363.04	<.001		
		Middle 2	19,421(16.0)	3,685(30.4)	4,679(38.6)	1,807(14.9)				
		Middle 3	1,730(14.2)	3,413(27.9)	4,973(40.7)	2,102(17.2)				
		High 1	1,386(11.5)	2,983(24.8)	5,222(43.4)	2,437(20.3)				
		High 2	1,139( 9.6)	2,751(23.2)	5,283(44.5)	2,692(22.7)				
		High 3	1,220(10.2)	2,676(22.3)	5,301(44.1)	2,815(23.4)				

집에서 화장실 다녀온 후 ‘항상 씻었다’는 대상자는 2011년 37,869 명(50.1%), 2012년 36,355명(49.8%), 2013년 40,637명(56.7%) 이었고, ‘전혀 씻지 않았다’는 대상자는 2011년 6,345명(8.4%), 2012년 6,558명(8.7%), 2013년 2,760명(3.7%)로 2013년에 현저히 줄었다.

외출 후 집에 돌아왔을 때 ‘항상 씻었다’는 대상자는 2011년 38,099명(50.45%), 2012년 37,298명(51.4%), 2013년 37,035명(52.0%) 이었고, 전혀 씻지 않았다는 대상자는 2011년 5,840명(7.7%), 2012년 5,882명(7.7%), 2013년 3,098명(4.1%)이었다.

### 3.2 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손씻기 실천 실태

현저하게 손 씻기 실천율이 낮아지지 않은 학교에서 식사하기 전 손 씻기 항목에 대하여 문제 요인을 확인하고자 인구학적 특성에 따라 그 추이를 살펴보았다.

인구학적 특성은 도시 구분(대도시, 중소도시, 군단위), 학교 유형(남녀 공학, 남학교, 여학교), 학교구분(중학교, 일반고, 특성화고), 성별(남, 여), 학년구분(중1,2,3, 고1,2,3)으로 알아보았다.

학교에서 식사하기 전 손 씻기에서 전혀 손을 씻지 않은 대상자는 도시 구분(대도시, 중소도시, 군단위)에서 살펴보면 2011년도(F=91.215,  $p<.001$ ) 2012년도(F=51.732,  $p<.001$ ), 2013년도(F=96.632,  $p<.001$ ) 모두 도시 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이는 사후검정 결과 대도시, 중소도시와 군 단위간의 차이로 대도시와 중소도시 학생들이 학교에서 식사 전 손 씻기 실천율이 낮음을 보여주고 있다.

학교 유형(남녀공학, 남학교, 여학교)에서는 2011년(F=917.042,  $p<.001$ ), 2012년(F=959.457,  $p<.001$ ), 2013년(F=877.139,  $p<.001$ ) 모두 남녀공학과 남학교 보다 여학교에서 유의하게 학교에서 식사 전 전혀 손을 씻지 않는 학생의 비율이 유의하게 높았다.

학교 구분(중학교, 일반계 고등학교, 특성화 고등학교)에서는 중학교과 일반계 고등학교가 특성화 고등학교 보다 2011년(F=695.13,  $p<.001$ ), 2012년(F=794.688,  $p<.001$ ), 2013년(F=1817.897,  $p<.001$ ) 모두 현저하게 학교에서 식사 전 손을 씻지 않았고, 그 차이는 유의하였다.

성별(남녀) 구분에서는 2011년도(F=1,988.952,  $p<.001$ ), 2012년도(F=1,700.308,  $p<.001$ ), 2013년도(F=1328.449,  $p<.001$ ) 모두 남녀 간에 차이가 있었고, 남학생보다 여학생이 학교에서 식사 전 손을 씻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년 구분에서는 2011년(F=941.848,  $p<.001$ ), 2012년(F=1,077.364,  $p<.001$ ), 2013년(F=2,363.043,  $p<.001$ ) 모두 학년이 고학년으로 올라갈수록 학교에서 전혀 손을 씻지 않는 대상자의 수가 점점 많아졌고 그 차이가 유의하였다[Table 2].

## 3. 논의 및 결론

청소년기의 바른 건강 행위 및 습관의 형성은 청소년 개인의 전 생애에 걸친 건강 유지·증진에 있어 큰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앞으로 가정과 지역사회의 건강증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국민건강증진이라는 목적을 달성하는데 있어 청소년기의 올바른 건강습관은 매우 중요한 수단이 된다[15]. 개인위생의 하나인 손 씻기는 누구든 쉽게 실천할 수 있는 중요한 감염 통제 방법으로 개인과 지역사회의 건강을 유지하고 감염 및 질병의 전파 위험을 최소화 하는데 도움을 주는 중요한 건강 습관이다[13]. 이에 본 연구는 중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에 이르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2011년부터 2013년까지 3개년 간 손 씻기 실태 추이를 확인하고 손 씻기 교육의 기초자료로 제공하고자 진행하였다.

최근 3개년 간 손 씻기 실천 실태를 확인해보니 ‘학교에서 식사하기 전 전혀 손을 씻지 않는다’는 응답자 수가 2011년 29.4%, 2011년 30.5%, 2013년 18.5%로 두 자리수로 유지되고 있어 계속적으로 주의깊게 관찰해야 하는 항목으로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나머지 ‘학교에서 화장실 다녀 온 후 전혀 손을 씻지 않는다’는 2011년 18.4%에서 2013년 5.6%로, ‘집에서 식사하기 전 전혀 손을 씻지 않는다’는 2011년 11.9%에서 2013년 6.9%로, ‘집에서 화장실 다녀 온 후 전혀 손을 씻지 않는다’ 항목은 2011년 8.4%에서 2013년 3.7%로, ‘외출 후 집에 돌아왔을 때 전혀 손을 씻지 않는다’는 항목은 2011년 7.7%에서 2013년 4.1%로 현저히 줄었다. 이는 선행연구[5, 16, 17]의 연구 결과와 같이 집에서의 손 씻기는 비교적 잘 이루어지고 있으나 학교에서의 손 씻기는 잘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결과와 같다. 본 연구에서는 손 씻기에 대한 이유 등에 대한 조사가 자세히 이루어지지 않아 심도 있게 그 결과 추이를 분석할 수는 없으나 선행연구[16]에서 학교의 손 씻기 시설에 대해서 ‘불충분’으로 응답한 응답자수가 80.5%라는 것과 외부 공공화장실의 손 씻기 환

경에 대한 전체 국민 및 만 14-19세의 청소년 응답자가 47.5%가 ‘불충분’으로 대답한 것과 비교해보면 손 씻기 활성화를 위한 시설 및 환경 개선이 계속적으로 요구되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경기지역 중 학생의 학교급식 위생에 대한 태도를 조사한 Oh[17]의 연구에 따르면 위생적인 급식 다음으로 올바른 손 씻기에 대한 교육을 원한다는 학생이 전체의 25.1%로 많았다는 연구결과와 함께 손 씻기에 대한 교육을 적게 받은 학생일수록 식사 전 손을 씻을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학교에서 식사 전 ‘전혀’ 손을 씻지 않다는 보고[18]는 학교에서 식사 전 손을 씻을 것을 계속적으로 강조해야 한다는 것을 말해준다. 또한 경기지역 중고등학생의 위생에 대한 연구[19]에 따르면 학교에서 위생교육을 받았다는 학생이 전체의 13%로 낮고, 위생교육의 필요성을 전체의 86%가 원하고 있으며, 그 이유가 질병 예방을 위해서라고 답해 손 씻기 뿐만 아니라 질병예방을 위한 전반적인 보건과 위생에 관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 2011년, 2012년, 2013년의 3개년 연도별 추이를 볼 때 공통적으로 대도시나 중소도시가 군단위보다 손 씻기 실천율이 낮았는데, 이는 Park et al[16]의 연구와 같으나 Jeong et al[20]의 연구와는 다르다. Park et al[16]의 연구에서 지적한 것과 같이 군 단위 지역의 화장실 개선 사업의 실시로 도시보다 더 나은 손씻기 환경이 마련되었기 때문이라는 분석으로 추론 할 수 있겠으나 이는 좀 더 깊은 연구를 통한 논의가 필요할 것이라 생각된다.

또한 본 연구에서 남녀공학과 남학교가 여학교 보다 오히려 손 씻기 실천율이 높았고, 성별에서는 남학생이 여학생에 비해 손 씻기 실천율이 2011년, 2012년, 2013년 3년 연속 계속적으로 높았는데, 이는 Park et al[16], Oh[17], Jeong et al[20]의 연구와 같이 손 씻기에 대한 지식은 여학생과 여성이 남학생이나 남성보다 높았으나 의외로 실천율은 떨어진다는 선행연구 결과와 같다. 이는 선행연구[5,16,17,20]와 같이 여성의 경우 남의 시선이 있을 때 보다 더 잘 씻는다는 Centers for Disease Control[5]의 결과와 같은 것으로 해석 할 수 있어 손 씻기에 대한 지속적인 관찰과 지도감독이 또 하나의 손 씻기 실천율을 높이는 방안이 될 것이라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 2011, 2012, 2013년의 3개년간의 추이에서 학년이 올라갈수록 오히려 학교에서 식사 전 손 씻기 실천율은 좋아지지 않는 것을 보였는데 이는 학년과 위생에 대한 관념 그리고 손씻기 실천이 차이를 보이지 않았

던 Lee[19]의 연구와 같아 학년과 상관없이 오히려 고학년일수록 손 씻기에 대한 교육과 지도를 강화해야 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교육과 지도를 강화함과 동시에 더욱 더 요구되는 부분은 손 씻기에 적절한 환경의 개선 및 시설구비이다. 앞서 언급한 선행연구[16,20]와 보건계 대학생의 손 씻기에 대한 연구[21]에 따르면 손을 씻지 않는 이유가 손 씻기에 대한 적절한 물품과 환경이 구비가 되지 않아 손을 씻지 않는다는 응답이 손을 씻지 않는 가장 큰 이유라는 보고를 볼 때 학교와 보건관리자가 학생의 건강증진과 질병예방을 위해 손 씻기에 적절한 환경을 개선하고 손 씻기 적절한 시설과 물품을 구비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함을 의미한다.

그러나 제일 중요한 논점은 학교에서 손 씻기 실천율이 집에서의 다양한 손 씻기 상황보다 낮다는 것이고, 이는 Park et al[16], Jung[18], Jeong et al[19], Centers for Disease Control [5]와 같은 결과로 Jung[18], Lee[19]의 주장과 같이 학교에서 손 씻기에 대한 교육과 관찰 그리고 연구가 계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본 연구가 청소년 건강행태 온라인 조사를 바탕으로 그 연구의 범위가 넓지 않아 보다 자세한 자료를 얻을 수 는 없으나 학교에서 개인위생에 대한 보건 교육 시 손 씻기에 대한 교육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그러나 보다 더 깊은 연구를 위하여 그들의 지식과 실천을 비교하고, 그에 따른 건강 신념 혹은 건강 상태 등 정신적 혹은 신체적 변화를 살펴본다면 보다 더 보건 교육에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리라 생각되어 다음과 같이 제언한다.

첫째, 개인위생에서 중요한 손 씻기를 학교생활에서 필요한 상황이 언제인지 보다 더 자세히 조사하여 지속적인 실태와 동향을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둘째, 손 씻기 실천과 함께 그들의 지식과 그에 따른 건강 신념 혹은 건강 상태 등을 조사하여 손 씻기가 실제적으로 건강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주는 연구가 이루어진다면 학생의 건강행위를 유도하거나 북돋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된다.

셋째, 손 씻기를 유도 할 수 있는 시설과 환경에 대한 연구를 통하여 손 씻기를 유도하고, 보건교육의 적절한 방법을 함께 연구한다면 보다 실제적인 위생교육과 연구가 되리라 생각된다.

## References

- [1] E. J. Kim, "A study on the mental health of high school students", Unpublished master's thesis, School of Public Health, Seoul National University, Seoul, 1989.
- [2] H. I. No, "A comparative study on the relationship of health knowledge to health attitude and health practical behaviors among high school students in seoul", Unpublished master's thesis, Ehwa womans University, Seoul, 2003.
- [3] E. Y. Kim, "The effects of health education on the basis of health education text book; The focus of health knowledge, health promotion behaviors, self-esteem and locus of control of high school students", Unpublished master's thesis, Chon-nam University, Chonnam, 2001.
- [4] Ministry of Health & Welfare, "2012 Statistical Yearbook of Health and Welfare", 2012.
- [5] Korea Centers for Disease Control & Prevention[KCDC], "Hand washing practices and perceptions survey report", Hyundai Research Institute, 2005.
- [6] I. S. Kang, "Jeju Island middle school students about the health promoting lifestyle practices research and influencing factors", Unpublished master's thesis, School of Public Health, Inje University, Pusan, 2000.
- [7] K. R. Baek, *Conditions and measures handwashing*, National Handwashing Campaign Headquarters Symposium Presentations, 2005.
- [8] Curtis & Cairncross, "Effect of washing hands with soap on diarrhea risk in the community; A systematic review". *Lancet Infection of Disease*, 3(5):275-281, 2003.  
DOI: [http://dx.doi.org/10.1016/S1473-3099\(03\)00606-6](http://dx.doi.org/10.1016/S1473-3099(03)00606-6)
- [9] S. E. Lee, "Associated factors of nasal methicillin-resistant Staphylococcus aureus transmission with knowledge, attitude and handwashing among health care workers", Unpublished master's thesis, Korea University, Seoul, 2006.
- [10] D. K. Park, "A Study on the Knowledge, Attitude and Practice of Handwashing in High School Students" Unpublished master's thesis, Kunkuk University, Seoul, 2007.
- [11] Y. J. Jang, "A Study on the Knowledge, Attitude and Practice of Handwashing in middle School Students", Unpublished master's thesis, Kunkuk University, Seoul, 2007.
- [12] Korea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ve, "Reports in Korea Youth Risk Behavior Web-based Survey 2011". KCDC. 2011.
- [13] Korea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ve, "Reports in Korea Youth Risk Behavior Web-based Survey 2012". KCDC. 2012.
- [14] Korea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ve, "Reports in Korea Youth Risk Behavior Web-based Survey 2013". KCDC. 2013.
- [15] J. S. Yoo, Adolescent health promotion and development of school health education,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school health*, 11(1), 27-50, 1988
- [16] D. K. Park, M. S. Lee, B. J. Na, S. H. Bae, K.Y. Kim, C. W. Kim, E. Y. Kim. Knowledge, attitude and practice of handwashing in high school students. *Journal of Korean society maternity child health*. 12(1); 74-91, 2008.
- [17] B. N. Oh, "A research on hygienic attitude of students about middle school food service in Gyeonggido", Unpublished master's thesis, Hanyang University, Seoul, 2013.
- [18] J. K. Jung, "The knowledge, attitude and practice of handwashing and toothbrushing in elementary school students", Unpublished master's thesis, Hanyang University, Seoul, 2009.
- [19] S. J. Lee, "A study on hygiene knowledge and performance level by hygiene education in middle and high schools - with students in Gyeonggi and Incheon area", Unpublished master's thesis, Kyonggi University, Kyonggi, 2005.
- [20] J. S. Jeong, J. K. Choi, I. S. Jeong, K. R. Paek, H. K. In, K. D. Park, A Nationwide Survey on the Hand Washing Behavior and Awareness, *Journal of Prevalence Medication Public Health*, 2007;40(3):197-204, 2007.
- [21] S. M. Ryu, Knowledge, attitude, and performance on the hand washing of health care related students, *Journal of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14(8):3916-3924, 2013.  
DOI: <http://dx.doi.org/10.5762/KAIS.2013.14.8.3916>

### 최영실(Young-Sil Choi)

[정회원]



- 2000년 8월 : 경희대학교 일반대학원 간호학과 (간호학석사)
- 2007년 8월 : 가톨릭대학교 일반대학원 간호학과(간호학박사)
- 2010년 3월 ~ 현재 : 송곡대학교 간호과 조교수

<관심분야>

간호, 보건, 조직심리